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2021.7.19.(월) 조간	배포	2021.7.16.(금)	

책 임 자	담 당 자
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권유이 (02-2100-2510)	김 영 대 사무관 (02-2100-2514)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석란 (02-2100-2610)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614)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김종훈 (02-2100-2990)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91)
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광우 (02-3145-6770)	박 종 춘 부국장 (02-3145-6772)
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진호 (02-3145-7550)	김 시 형 팀 장 (02-3145-7440)
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 정용걸 (02-3145-8810)	최 재 식 팀 장 (02-3145-8260)
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김미영 (02-3145-8150)	이 현 덕 팀 장 (02-3145-8129)
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유재욱 (02-2128-8010)	심 재 철 부 장 (02-2128-8015)
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 정순호 (02-750-1021)	이 상 우 부 장 (02-750-1071)
여신금융협회 상무 배종균 (02-2011-0602)	이 경 원 부 장 (02-2011-0742)
여신금융협회 상무 이태운 (02-2011-0710)	김 효 석 부 장 (02-2011-0743)
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병주 (02-397-8602)	성 용 욱 부 장 (02-397-8640)
대부금융협회 전무 이재선 (02-6710-0802)	심 용 식 부 장 (02-6710-0810)

제 목 : **최고금리 인하**는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
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습니다.

－ 금융당국·업계 합동 「**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**」 2차 회의 개최 －

1 개요

- '21.7.16.(금)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관련 금융협회와 「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」 제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(지난 6.16일 Kick-off회의 개최)

【 **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** 】

- ◆ **일시 / 장소:** '21.7.16.(금) 14:00 / 영상회의
- ◆ **참석:** (금융위) 사무처장(주재), 금융소비자국장, 관련 과장
 (금감원)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, 관련 국장
 (서민금융)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,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
 (금융협회) 여신금융협회·저축은행중앙회·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

[저신용자 신용대출]

-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·여신전문금융업·대부업*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여,

*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, 17개 여전사, 20개 대부업체 (각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~95% 수준)

-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*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.

* 신용점수 하위 8% (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)

- 최고금리 인하(7.7일 시행) 이후 현재까지는, 일각에서 우려했던 “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”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

- 3개 업권 모두 7.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으며,

-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.7일 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습니다.

* [저축] (시행전 : 7.1~7.6일) 일평균 237억원 → (시행후 : 7.7~7.15일) 245억원
 [여전] (시행전 : 7.1~7.6일) 일평균 115억원 → (시행후 : 7.7~7.15일) 114억원
 [대부] (시행전 : 7.1~7.6일) 일평균 27억원 → (시행후 : 7.7~7.15일) 34억원

[불법사금융]

-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TF*를 통해 7.1일 부터 4개월 기간을 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」으로 선포·운영 중입니다.

* 금융위, 과기부, 방통위, 경찰청, 국세청, 서울시, 경기도, 금감원, 서금원, 법구공 등

-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, 불법사금융 피해신고*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

* (6월) 일평균 38.9건 → (7.1~7.15일) 42.7건

-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*이 증가하여,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입니다.

* (6월) 일평균 1,067건 → (7.1~7.15일) 1,364건

□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.7일에 맞춰 **안전망 대출II**를 출시하고, 기존 **햇살론17**을 **햇살론15**로 개편했습니다.

* [안전망II]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·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

** [햇살론15] 햇살론17을 15로 변경하고, 금리를 17.9%에서 15.9%로 2%p 인하

□ 두 상품은 **차질 없이 상담 - 심사 - 대출승인**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향후 민간 대출시장에서 **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가** 발생하더라도 **튼튼한 안전망**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**햇살론15**는 금리인하 개편(17.9%→15.9%) 이후 **큰 호응**을 얻으며 7.15일까지 **6,159건, 404.6억원**이 공급되었습니다.

○ **고금리대출(20%초과)** 대환상품인 **안전망 대출II**도 출시이후 저신용·저소득 차주에게 **꾸준히 공급***되고 있습니다.

* 7.15일까지 208건, 18.3억원 공급

※ [참고] **업권별 자체 소급적용 방안 정리** (각 협회 보도자료 既배포)

■ **[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업권]** 기존 20% 초과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모든 차주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20%이하로 금리 인하 **일괄 적용**

-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%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27개사 중 26개사가 적용을 완료, 남은 1개사도 7월 중 완료 예정
- 저축은행은 20% 초과금리 대출 잔액이 있는 41개사 중 24개사 적용 완료, 남은 17개사도 한 달 안에 완료 예정

■ **[대부업권 : 19개* 대형업체]** 기존 24% 초과금리 대출에 대해 성실상환 차주의 **신청 시 20% 이하 금리로 갱신계약** ('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와 유사한 방식)

* 골든캐피탈대부, 넥스젠파이낸스대부, 리드코프, 미래크레디트대부, 밀리언캐쉬대부, 바로크레디트대부, 스타크레디트대부, 아프로파이낸셜대부, 안전대부, 애니원캐피탈대부, 에이원대부캐피탈, 오케이파이낸셜대부, 웰컴크레디라인대부, 유미캐피탈대부, 유아이크레디트대부, 콜렉트대부, 태강대부,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+ **앤알캐피탈대부(7.12일 협회보도 이후 신규 추가)**

업권		대상 차주수	이자절감효과
여전	카드	246.7만 명	816억 원
	캐피탈	17.5만 명	350억 원
저축은행		61만 명	2,774억 원
대부업		5.7만 명	200억 원
합 계		330.9만	4,140억원

- ☐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선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.
- ☐ 이와 함께,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업계·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했습니다.
- ①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,
 -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 - ② 각 업권에는 저신용·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 되도록, “사회적 책임의식”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 -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, “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” 도입*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,
 - “서민금융업권”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.

※ 7.7일 「대부업법 감독규정」 개정 완료

- 향후 서민금융공급 요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,
-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를 허용하고,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

- ③ 마지막으로, 정책서민금융 상품,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“알아야” 활용할 수 있는 만큼,
 -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

- ☐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,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- **(추진배경)** 최고금리 인하 관련, ①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
② 업권별 동향 점검 ③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,
- 금융위·금감원·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
시행상황반을 구성·운영
- **(추진체계)** 시행상황반 內 정책점검팀, 시장점검팀, 애로상담팀 등
3개 팀으로 구성
- ① **(정책점검팀)**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관련, 법령
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·보도자료 배포 등을
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
- ② **(시장점검팀)**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
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
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강화
- ③ **(애로상담팀)**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
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, 소비자 대상
홍보 및 교육을 진행

<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추진체계>

